

20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가 지원사업

문학 첫 책/창작집 발간지원

시조 동시 동화 평론 희곡 분야 최종 심의결과

1 추진 경과

※ 소설, 시 분야 2019. 04.26 (금) 발표 예정

□ 심의 대상사업 : 총 257건

구분		시조	동시	동화	희곡	평론	계
창작집	15년 이하	18	35	47	5	2	107
	16년 이상	13	16	12	4	3	48
첫책		20	30	27	14	11	102
계		51	81	86	23	16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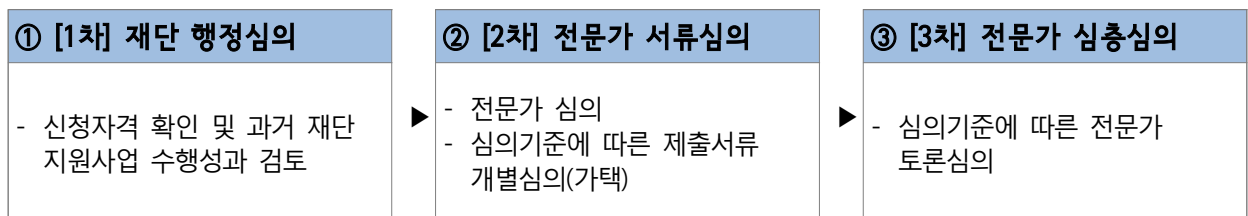
□ 심의위원회 구성 : 21명 (※ 심의위원 명단 참조)

□ 심의진행 일정

구분		기간	심사내용	심사장소
1차	행정심의	~ 3. 7.(목)	신청자격 확인 및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 적용	연희문학창작촌
2차	서류심의	3. 8.(금)~ 4. 8.(월) * 분야별 상이	무기명 원고 심사	가택
3차	심층심의	3. 20.(수)~ 4. 4.(목) * 분야별 상이	서류 및 종합토론	연희문학창작촌

2 심의 방법

□ 심의 절차



□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 계획	집필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필 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집필 방향 및 작품 성격의 적정성 - 제출 원고와 집필 계획의 부합성 - 출판사 확정 여부
사업 실행	원고의 우수성/ 완성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원고는 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작가의 수행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작가 이력 및 주요 활동 실적 - 작가 창작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업 성과	창작집 발간의 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창작집은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가? • 계획된 창작집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심의원칙

(1)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목표 부합여부 검토

- 공고된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검토 및 적용

(2) 전년도 지원사업 운영실적 환류 및 관리규정의 엄격한 적용

- ‘예술지원사업 지원금관리규정’ 미 준수 개인에 대한 지원자격 박탈

(3) 창작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복수혜 배제

- 재단 예술지원사업 내 동일사업 중복선정 불가 원칙

3 최종 심의결과 의결사항

□ 최종 심의 결과 : 총 18건 선정 / 1억 8천만원 지원결정

- 지원규모 : 1천만원 정액지급 (※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

구분	시조	동시	동화	희곡	평론	계
창작집	2	3	4	1	1	11
첫책	1	2	2	1	1	7
계	3	5	6	2	2	18

□ 최종 예비선정 : 10건

- 예비선정 건수

구분	첫 책 발간	창작집 발간	계
최종 선정건수	7	11	18
예비 선정건수	5	5	10

※ 예비후보자 중 선정될 시, 개별 연락 예정

4 향후 일정 안내

□ 신청자격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기한 : 소설, 시 분야 최종 발표(2019.4.26. 금)후 10일 이내 (~ 2019. 5. 6. 월)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제출 방법은 소설, 시 분야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선정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신청자격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①	서울거주 및 서울소재 활동 실적 (4개 중 택일)	주민등록초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서울 소재 문예지 발표실적 (1건)	- 문예지 표지 사본 - 작품제목, 작가명 명기된 목차 사본
		서울 소재 출판사 발간실적 (1건)	- 발간책자 표지 - 출판사주소가 명기된 판권지면 사본
		회곡의 경우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한 공연 실적 (1건)	- 작품제목, 작가명, 공연장명이 명기된 공연프로그램북 또는 리플릿 사본
②	등단 관련 증빙자료	등단작가 등단 증빙자료 (1부)	- 신춘문예 또는 신인문학상 발표지면 사본, - 문예지 표지 및 작품제목, 작가명이 명기된 목차 사본 등 - 회곡의 경우 작품제목, 작가명이 명기된 공연 프로그램 북 또는 리플릿 사본
		미등단작가 개인창작집 발간 증빙자료 (1부)	- 표지 사본(작품제목, 작가명, 출간연도 명기)

※ '신청자격 증빙자료①'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활동 중 택일하여 제출

□ 지원사업 포기신청 기한 안내

○ 지원 선정결과 고지 후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신청방법 :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 포기신청기한 : 2019. 5. 24.(금) (※ 시, 소설 분야 최종 발표일 기준)

-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 위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예술가는 차기년도 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5 심의위원 명단

(※ 심의위원명단 가나다순)

연번	구분	장르	심의위원		현직
1	통합 [첫책 + 창작집]	시조	5인	정수자	시조시인
				이송희	시조시인
				유성호	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홍성란	시조시인
				이승하	시인, 중앙대 교수
2	동시	5인	김제곤	아동문학평론가	
			박두순	동시인, 시인	
			박숙경	아동문학평론가	
			박혜선	동시인	
			신형건	동시인	
3	동화	5인	김용희	아동문학평론가, 동시인	
			박상재	아동문학가	
			정란희	동화작가	
			홍종의	아동문학가	
			김혜정	아동문학가	
4	평론	3인	권성우	문학평론가, 숙명여대 교수	
			이명원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이재복	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5	희곡	3인	김미도	연극평론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근형	극작가, 연출가, 극단 골목길 대표	
			성기웅	극작가, 연출가	

6 최종 선정자 명단 및 심의 총평

□ 선정 결과 : 총 50명 / 500,000천원 결정 (※ 선정자명 접수번호순)

○ 창작집 발간 : 총 11건

연번	사업유형	세부장르	접수번호	선정자	사업명	지원결정액 (단위:천원)
1	시조	15년 이하	201914801	김영란	꽃잎 효과	10,000
2		16년 이상	201912248	서숙희	고독의 뼈는 단단하다	10,000
3	동시	15년 이하	201912104	문현식	학교 로그인	10,000
4			201913815	김현숙	팬지꽃 신발	10,000
5		16년 이상	201918622	손동연	천사의 자격	10,000
6	동화	15년이하	201912635	성현정	모퉁이를 돌면 유명빌라	10,000
7			201913044	김은중	우리 집 신령님	10,000
8			201915402	이외숙	역사전달자, 호문	10,000
9		16년 이상	201912157	강무홍	집으로	10,000
10	평론	16년 이상	201911843	심영의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Gender) 정치학	10,000
11	희곡	15년 이하	201915307	김은성	그 개	10,000

○ 첫 책 발간 : 총 7건

연번	세부장르	접수번호	선정자	사업명	지원결정액 (단위:천원)
1	시조	201910259	이나영	잠금 해제	10,000
2	동시	201916932	김순영	열 살짜리 벽지	10,000
3		201917089	박민정	재판 받는 말	10,000
4	동화 단편 장편	201912532	이성엽	내뿔을찾아줘 - 키크는비법	10,000
5		201916442	김보영	경성 무대스타 올빼미	10,000
6	평론	201912659	이선영	그리하여 밤이 밤을 밝히었다	10,000
7	희곡	201916478	한현주	잔다리 건너 제물포	10,000

□ 심사 총평(요약)

○ 창작집 발간

□ 시조

- 지원자들의 열정이 대단했고 전체적으로 작품의 균질성과 수월성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례들이 많았다. 유연성, 참신성을 보인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특정 시인의 취향을 답습하거나 특정 시인이 주로 써온 시어를 모방 답습하는 폐단은 감점 요인이 되었다. 시조는 언어의 성찬만도 아니고 지식의 전시장도 아니다. 소통 부재의 현란한 수사와 과도한 비유로 독자를 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조화, 균형, 절제, 여백의 미학이라는 시조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선정된 작품들은 인식과 표현의 새로움을 보여주었다. 시조 본연의 정형성을 안정감 있게 구사하며 그 안에서 참신한 영역의 개진이 돋보였다.
- <꽃잎 효과>는 서정적 깊이와 서사적 진정성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상상력과 표현의 폭이 시조의 현대성을 구현하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독의 뻗는 단단하다>는 탄탄한 상상력과 비유의 활달함이 높은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 지나친 파격으로 시조가 아닌 시조가 ‘실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조시단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던 차 수준 높은 시조를 보게 되어 안도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이 시조집으로 발간되면 시조의 새로운 완미함을 보여주면서 다른 시인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우리 시조시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 동시

- 대체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고르고 형상화나 메타포가 높은 경지에 있었다. 다양한 소재와 접근으로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등단 15년 이하 작가들의 지원신청작들은 시적 참신함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학교 로고인>은 현직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느낀 감정과 인식을 미더운 시선과 언어로 녹여냈다. 평이한 아이들의 일상을 개성 있는 문체로 그려내 긴장감 있고 집중력 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야말로 시적 정확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맛보게 한다.
- <팬지꽃 신발>은 자연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따뜻하고 웃음어린 시선, 언어로 담아내었다. 흔한 사물 속에서도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미덕이 있다. 간결하고 재치 있는 표현에 진정성을 겸비하고 있어 공감과 재미를 둘 다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 <천사의 자격>은 문명에 대한 고민을 어린이들과 공유하기 쉽도록 동시로서 잘 표현하였다. 감각적 표현과 재기발랄한 분위기가 시를 살리고 있으며, 짧은 시 안에 반전의 묘미를 담아내 언어를 다루는 솜씨에서 원숙함과 시적 완결성이 느껴졌다.
- 아쉬운 점은 주제의 소화가 덜 된 작품이 있었다. 관념에 매여 시적 운용이 경쾌하지 않은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표절 시도 만나게 되었는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를 발표할 때는 스스로의 시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

□ 동화

- SF, 역사 판타지 장르의 동화가 많이 지원 신청하였고 수준 또한 높았지만, 기존 출간된 작품과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등단 15년 이하와 등단 16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했지만 작품의 우수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 선정된 단편은 모두 내공이 돋보였으며 현 출판시장에서 기피하는 단편동화집의 우려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수작이었다.

<모퉁이를 돌면 유령빌라>는 우수하고 안정된 문장력과 삶을 포착하는 시선이 눈길을 끌었다. 스토리가 재미있고 주제가 선명하여 전체적으로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다.

<집으로> 역시 문장력이 좋고 주제가 명징하여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 장편의 경우 모두 탄탄한 구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조사 그리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충족시켰다.

<우리 집 신령님>은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옛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스토리가 재미있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재 구현한 점이 양호하며 입담이 좋아 잘 읽혀지리라는 확신이 든다.

가야시대 고분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펼친 <역사전달자, 호문>은 자료 조사가 충분하고 편집성이 우수하여 역사동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유물을 지키는 과정 역시 흥미진진했다.

- 전체적으로 소재도 다양하고 작품의 밀도와 함량이 충분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 선정작 수의 제한으로 뽑히지 않은 작품이 있어 아쉽다.

□ 평론

- 대체로 ‘등단 16년 이상’의 성과가 ‘등단 15년 이하’의 성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고 심층 심의에 올라온 작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 선정작이 된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는 최근의 민감한 젠더 문제를 작품을 통해 구명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으로 동시대의 문학적 장점에 대한 과감한 논의와 성실한 입론으로 주목받았다.

- 탈락한 작품 중에는 탄탄한 이론과 레토릭을 통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었으나 비평 장르의 독자성, 해석의 유연함과 예리함, 가치평가의 명료함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부기해둔다.

- 선정된 분께는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아쉽게 탈락된 분께 다른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 희곡

- 창작집 발간 지원사업에는 대체로 중견 작가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괄목할만한 작품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등단 16년 이상 지원자 중에서는 심층심의 대상자를 내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참신한 작품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전히 희곡작가의 층 자체가 두텁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심층심의 대상이 된 이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이 분명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써온 작가들이었고, 그 중 선정작이 된 <그 개>는 문학과 연극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쉽게 일치했다.

- <그 개>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작가만의 화법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 수작이다. 발상과 이야기 전개가 흥미롭고 의미의 해석은 물론 연출적 해석의 여지도 넓어 그 가치가 돋보였다. 언제나처럼 김은성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냉혹함을 함께 펼쳐 보이는 작가이다. 희곡집의 출판 계획에도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첫 책 발간

□ 시조

- 시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이었다. 감각적 언어구사 능력, 시대사를 표현하는 활달한 감성과 비유, 낯익은 어법을 버리고 자기만의 문법으로 시조의 현대성을 개척한 점이 돋보였다. 참신성, 공감, 공명할 수 있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시와 시조가 완전히 다른 장르임을 인지했으면 한다. 단순히 자수를 맞추는 것이 시조가 아니며, 조화, 균형, 절제, 여백의 미학이라는 시조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조는 언어의 성찬만도 아니고 지식의 전시장도 아니다. 소통 부재의 현란한 수사와 과도한 비유로 독자를 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 심층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모두 시조 고유의 품격과 남다른 언어감각으로 현대시조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며, 선정 인원이 적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정된 작품 역시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시조문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 동시

- 첫 책 발간을 고대하는 신인들답게 신선한 발상과 어법이 두드러져서 반가웠다. 유머와 재치가 번뜩여 읽는 재미를 주었고, 다양한 제재 선택과 풍요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시적 풍요로움을 더했다. 참신성을 제일 염두에 두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고려해 지원작을 선정했다.
- <열 살짜리 벽지>는 시가 간결하고 이미지가 선명하며, 동심적 발상과 표현으로 독자들이 공감하기 쉬운 작품들이었다. 오랫동안 동시를 고민하며 자기 세계를 가꾸어 온 시적 노력이 느껴졌고, ‘말’에 대한 고민과 인식이 돋보인다.
- <재판 받는 말>은 서정으로부터 출발하되 위트와 판타지 등 이야기의 요소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사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끔 하는 우화적 이야기 전개는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개성이라 할 만하다. 읽는 재미와 함께 완성도를 고루 갖춘 작품이었다.
- 일부 작품은 시적 응축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다소 미흡했다. 설명조나 산문조의 묘사나 진술이 있어 읽기에 지루한 감을 주었다. 생활시의 경우 대체로 경험이나 체험을 재구성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있어 시적 긴장감이 떨어졌다. 너무 재치에만 의존한 나머지 시적 형상화가 덜 되어 공감하기 어려운 시들도 종종 있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신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여럿 엿보여 고무적이었으며, 동시의 앞날이 밝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 동화

- 첫 책 발간지원 신청작은 단편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는 창작집 발간지원과 대조적이었다.
- 비슷한 주제, 여러 차례 다뤄왔던 소재들이 많아 아쉬웠다. 또한 발상은 참신하나 서사와 구성, 캐릭터 구현의 허술함으로 뒤로 밀린 작품도 있었다. 어린이의 캐릭터가 재기발랄하게 살아있어서 이야기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 작품들을 만나면 무척 반가웠다.
- 심층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모두 작품성이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았다. 출판 신인으로서의 참신성과 도전적 시도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 최종 선정된 2편은 뛰어난 상상력에 동화적 가치를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구성력도 돋보이고 심리묘사도 잘 드러내어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 단편 <내 뿔을 찾아줘-키 크는 비뻬>은 기발한 상상력의 저학년 동화로, 지원신청작 중 가장 동화적이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작품이었다. 도깨비와 관련된 기존 동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있었다. 탁월한 상상력과 구성의 독특함이 신선했고, 창작계획 역시 훌륭했다. 동화가

동화의 본질을 잃어가고 난해한 쪽으로 흘러가는 현실에서 지향해야 할 작품이다.

- 장편 <경성 무대스타 올빼미>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수작으로 타임 슬립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동극을 소재로 삼아 짜임새 있고 박진감 있게 펼쳐간 작품이어서 재미있게 읽힌다. 기존과는 판이한 차별성으로 작품의 가독성을 증폭시키는 우수한 작품으로 출간 후 어린이 독자의 반응이 기대된다.
- 작가적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정하고 심의를 마치고도 흐뭇한 마음이다. 책이 발간되면 한국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작가의 활동 역시 기대된다.

□ 평론

- 비평적 문제의식의 치열함, 작품 분석 능력, 문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서류심의를 통과한 네 명이 심층심의 대상이 되었다.
- 최종 선정에서 주목한 건 문학비평의 현장개입성(해석을 통해 적절한 평가로 이행하는가)과 논문과 비평의 차이(문학비평의 독자성을 살리기 위한 에세이 정신의 유무)였다.
- 선정된 <그리하여 밤이 밤을 밝히었다>는 다른 심의 대상자의 평론에 비해 비평적인 감각과 레토릭을 겸비하고 있으며, 작품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비평적 해석이 돋보였다. 다만, 이것을 관통하는 비평적 주제에 대한 모색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선정된 분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를 보내며, 아쉽게 탈락한 분들께는 꼭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 희곡

- 동시대의 질문이 담긴 사회풍자극부터 가족의 부채를 다룬 작품들, 일상적인 심리극 등 다양한 작품들을 검토하였다. 희곡집 발간 지원사업인 만큼 희곡의 문학적 가치를 중시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극작에 대한 종래의 개념에 갇히지 않고 남다른 공연성을 담은 대본으로서의 텍스트 출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심의에 임했다.
-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극작 활동만을 전념해온 작가의 <잔다리 건너 제물포>를 뽑는 데 심의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특히 이 작품집에 포함될 <잔다리 건너 제물포>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제물포를 배경으로 청년들의 욕망과 갈등을 표현한 수작이다. 1920년대 인천의 근대적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등 자료 조사까지 치열하게 수행한 작품이다. 기발한 재미나 놀라움을 선사해주지는 않지만 역사와 현실에 대한 성실한 취재,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 정제된 필력, 꾸준한 작품 활동 등 여러 미덕을 갖추고 있어 희곡집 출판 지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 이번 심의결과가 예상 밖의 놀라운 발견이나 발굴을 낳지는 않은 셈이다. 지원자들이 많았던 데 비해 막상 최종 후보로 거론될 만한 작가들이 많지도 않았다. ‘첫 책’이니만큼 젊은 작가들의 야심적인 작품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고, 작업의 지속성과 작가로서의 치열함을 염두에 두었다. 작가로서의 이력이 오래되었다 해도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진부한 작품들은 주목을 끌지 못했다.
- 희곡집 출판 자체가 몹시 어려운 형편인데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첫 희곡집 출판을 돕게 되어 기쁘고, 선정된 작가의 첫 창작 희곡집 발간을 기대하며 축하해 마지않는다.